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㉔ 종지용출품 제15

땅에서 솟은 보살들

범본(梵本) <법화경> 제14장 '구도자(瞶瞶)들이 대지(大地)의 갈라진 틈에서 출현했다'는 것을 <묘법연화경>에서는 '종지용출품제십오(從地涌出品第十五)'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종지용출품'에서는 첫머리에 6만 갠지스강의 모래(恒河沙) 만큼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구도자(瞶瞶)들이 땅속에서 돌연히 출현하여 이 사바 세계에서 <법화경>을 지키고 간직하며 넓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 법회에 동참한 사람들도 지금까지 들지도 보지도 못한, 땅 속에서 솟아난 구도자들에 대해 당연히 놀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구도자들이야말로 내가 옛날부터 교화한 사람들임을 밝히지만, 사람들은 성도한지 불과 40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석존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그 까닭을 해설해 주소서 하고 간청한다.

이것이 이 15장의 줄거리인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품은 의문은 다음의 제16장 '여래수랑품'에서 밝혀진다. 그러므로 이 15장은 구

지런히 정진하며 이 <법화경>을 지켜 간직하고 읽어주고 외우며 쓰고 베껴서 공양할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참으로 이 국토에서 널리 <법화경>을 실행하 합시다"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그만두자, 선량한 남자들이여, 그 뜻은 고맙지만 그대들이 <법화경>을 지키고 간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거느리는 이 사바세계에는 6만 갠지스강 모래 수만큼이나 되는 위대한 뜻을 세운 구도자가 있으며, 그 하나 하나의 구도자에게는 각각 6만 갠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어, 이 여러 사람들이 내가 멸도한 뒤에 <법화경>을 지켜 간직하고 읽어주고 외워주며 널리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바세계 전체의 땅이 모두 진동하면서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 만 억의 큰 뜻을 세운 구도자들이 동시에 솟아 나왔다. 그 구도자들의 몸은 황금색으로 서른 두 가지의 위대한 사람이 갖는 모습(大人相)을 갖추었으며 무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상의 줄거리에서 <법화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사바세계는 만주수리



유각스님은 '범본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다'며, 사회 각 계층의 직업에 맞게 참선을 가르쳐 중국 선종의 중흥을 꾀하고 있다.

30대 초반, 유각 스님은 대만 시방대 각선사에서 일심으로 정토(淨土) 수행에 매진해, '아미타불'을 하루에 10여 만번이나 염(念)했다. 법당의 향동(香爐) 소임을 맡아보던 그는 매일 새벽 2시, 다른 스님들이 아직 잠자고 있을 시각에 대웅전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후 휴식 시간에도 홀로 대웅전에서 기도 정진하는 등 남모르게 공부했다.

원두(圓頭)라는 변잡하고 힘든 소임을 맡았을 때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머리에 삿갓을 쓴 듯, 시선을 1m 범위 밖을 넘지 않은 채 6근(俄)을 거둬들이며 전심전력 공부했다. 이러한 부지런함과 분발심으로 드디어, 열불법문종의 최고 경계인 실상염불(實相念佛)에 계합하고 정토의 궁극적인 본질인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체증(體證)했다.

'삼천대천 세계가 내 한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선정일여(禪淨一如)의 도리를 요묘한 것이다.

수행상의 진보가 나타나자 노화상은, 한층 분발하기 위해 폐관(閉關), 산문을 나서지 않고 수행하는 것 정진을 결심한다. 마침내 시방대각사를 떠나 의란 길상사, 신죽 원명사, 홍곡 대여산 등지에서 폐관 정진했다. 1970년대 말기에 홍곡에서 대만으로 돌아와 대북현의 석정(石硯)과 평계(平溪), 대북시 신의로의 한 강당에서 강사로 지내기도 했다. 뒤에 몇몇 거사들이 발심해 만리 영천사가 있는 현지에 조그만 땅을 사서 그에게 공양했다. 노화상은 이곳에 간소한 초가집을 짓고 청정 수행을 계속했다.

1985~6년 사이, 양명산국가공원내

에 산업도로 건설이 시작됐다. 마침, 이 도로는 유각 스님의 초가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스님이 홀로 거처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이때 비로소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의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처음 노화상을 접한 상수제자들이 따르면, 당시 노화상은 마치 농부처럼 보였으며, 소박하면서도 중후한 생활은 남이 보기에 고난에 가까운 생활이었다. 몸에 걸친 옷은 남루하기 그지 없이 꿍뚱하고 꿍뚱 남의(衲衣)였고, 일상의 음식들은 직접 기른 고추와 오이, 배추 등 채소들이었다. 거사들이 유각 스님의 이런 어려운 생활을 보다 못해

"하루 5분 참선"

1980년대 초 타이베이현(臺北縣) 민리향(萬里鄉) 개자산(芥子山)에 농부처럼의 한 스님이 있었다. 초라한 초가집에 홀로 살면서 해진 옷, 거친 음식으로 고행을 마다 않고 소박한 은거생활을 즐겼으니, 그가 바로 유각(惟覺) 스님이었다.

수년 후 산업도로가 생기면



유각스님

"수행하면 원한·투쟁 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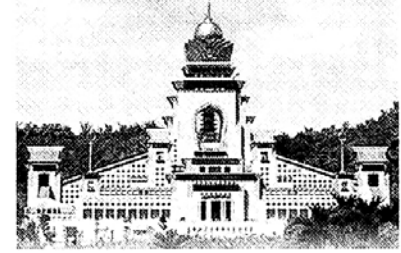
음식물을 공양할라치면, 하나도 들지 않고 탁자 위에 붓지도 뜯지 않은 채 며칠씩 그대로 놓아두기 일쑤였다.

인연이 무르익어, 법을 구하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스님은 기연(機緣)이 성숙되었음을 감지하고, 드디어 영천사를 창건했다. 1987년 4명의 제자가 출가해 영천사의 첫번째 대종이 형성되었고, 재가 거사들도 300인이 됐다. 스님은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3개월만에 옥불전 한 채를 완성했다. 이곳에서 승속 제자 20명과 함께 영천사의 제1차 '선찰'을 개회했다.

이 작은 규모의 선찰이 중국 선종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했다. 1992년 49일간 연속된 7번의 선찰은 불교계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노화상의 근기에 맞춘 가르침과 선법은 극히 활발하고 원용해, 결코 고요한 형식이 없었다. 때로 방학, 몽둥이



93년 설립된 종대불교학원에서 정진중인 학인들.

출가자 1천여명과 재가신도 수십만명이 수행하는 종대선사(中台禪寺) 정경.

유각스님 수행법 깨달음 위한 세가지 약...

수식관(數息觀), 화두 참선, 중도실상관(中道實相觀)은 유각 스님이 강조하는 세 가지 법문이다. 스님에게 있어, 이 세가지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뛰어난 세 가지 약재이다. 말하자면 수식관은 보약이요, 화두 참구는 설사 약이며, 중도실상관은 심전대보탕(十全大補湯)이다. 이 세 약의 약방은 서로 섞여서 효용을 일으키고, 개별적으로도 복용이 가능해 몸과 마음을 보충하고 튼튼히 하는 기능을 갖는다.

수식관 식의 목적은 망상을 다스리고 선정 안에서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처음 번뇌가 많은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고 하나, 둘, 셋... 아홉, 열 호흡을 헤아리며 숫자에 마음이 머물게 한다. 이윽고 마음이 안정되면, 심신이 평정되고, 편안해진다.

매우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 선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신체를 이완시켜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화두 참구 화두(話頭)는 세가지 단계가 있다. 즉 마음을 끌어 일으키고(提念), 마음을 비추어 보며(照念), 참구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호를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고 세 번 외운다. 열불한 이후에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 방금 열불한 이 물건은 무엇인가(念佛是誰)? 만약 이 열불이 마음 속에 있다면, 잠 자고 있을 때 이 열불은 왜 열리지 않는 것인가? 만약 이 열불이 마음 안에 있다면,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또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의문 덩어리(疑團)'가 일어난 후

'아미타불'의 '아' 자에 집중한다. '아' 자는 어떤 곳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 말머리(頭)를 찾아내, 즉시 마음을 모은다. 열불의 화두에 마음을 집중할 때, 화두 안에서 하나의 의정(疑情)이 일어난다. '점점 화두 안에서 '무언고(誰)' 하는 의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만약 1차로 '아' 자가 들리지 않을 때는 2차로 다시 한번 '아-' '무언고-' '아-' '무언고-'를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이 밖의 번뇌(煩惱)를 하지 않고 내면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일생의 사건이 모조리 비춰져서 심이 사라진다. 우리 일생의 선악과 비가 파노라마처럼 드러난다. 그러나 이 경계에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계는 허망한 환상으로서 진

땅 갈라지며 '큰 뜻 구도자' 솟아 무명개고 일어난 부처님 제자들

성상에서 다음 '여래수랑품'의 도입부에 해당하며 또한 '여래수랑품'을 설하기 위한 복선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을 성립사상(成立史上)의 관점과는 달리 그 형태상으로 보면 '제14장 안락행품'과 '제15장 종지용출품'과의 사이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중국이래의 전통적인 해석이다. 특히 천태지(天台智顓)가 '전반(前半) 14품을 적문(迹門), 후반(後半) 14품을 본문(本門)'이라고 구분 이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본(本)'·'적(迹)'이라는 글자의 뜻은 '근본'과 '흔적'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장자(莊子)> '천운편(天運篇)'에 나오는 '적(迹)', 즉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적(迹)하는 까닭', 즉 그것을 생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있는 근원적인 바탕(本)이라는 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이 15장에서부터 <법화경>의 본문(本門)에 들어간다.

이 15장의 첫머리에서는 타방(他方)의 국토에서 온 6만 갠지스강 모래 수보다 더 많은 구도자, 즉 보살들이 '만일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부

(文殊)·사만타바드라(普賢)·아바로키테스바라(觀音)·마이트레야(彌勒)와 같은 관념상의 보살이 아닌 사바세계의 사람들에 의해 교화되고 구제되어야 한다. 즉 지구 속에서 솟아 나온 구도자들, 무명을 깨고 일어난 사람들은 석존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석존의 가르침을 넓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이 사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생과 연(緣)이 깊어서 <법화경>을 넓히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새로 등장하는 네 사람의 위대한 구도자(四大菩薩)란, 모두 행(行)을 위주로 하는 구도자이므로, 앞으로 <법화경>을 설해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할 구도자는 행을 통하여 구제해야 하며, 훌륭하게(上行), 끝없이(無盡), 청정하게(淨), 그리고 깨끗하게(安立) 행(行)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누구라도 한결같이 훌륭하게 끝도 없이 항상 맑고 깨끗하며 깨끗하게 굽히지 않고 <법화경>을 설해야 할 것이다. 즉 세간 법에 물들지 않음이 마치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아야 한다.

무수설자 조실

영혼 결혼식

[중매에서 전도식까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먼저 보낸 부모님은 평생 한(恨)을 안고 눈물로 보내게됩니다. 허망함과 비통한 마음으로 결혼도 못하고 갔으니 천상에서나마 짝을 지어주어 혼례를 올려주면 극락왕생 한다하여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고자 하지만 짝을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가짜 영가나 상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대충 허거나 몇 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한(恨)을 안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가족협회에서는 6년 전부터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벅룩시장, 교차로 등에 많은 광고를 하여 전국에서 접수하신 남자, 여자영가들의 나이, 학력, 집안 등을 따져 사주로 궁합을 본 후 양가 집안끼리 연결하여 1부 결혼식, 2부 살풀이를 겸한 부부전도식 까지 올려주므로 부모님들이 만족해하시어 장안에 소문이 났으며 지금까지 삼중백합점 영령들을 포함해서 약 300쌍이 영혼의 인연을 맺어 극락으로 천도되었으며 지난 4월 13일 'KBS2 - TV VJ클럽'이라는 프로에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부모 형제 님과 사찰에 계신 스님들께서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1개월간 여자영가 결혼식 비용 무료로 해드립니다.

문의 02)835-9797

자료제공 : 한국 가족협회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는 병성중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이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파부체형연구소 홈페이지 www.skin-reform.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 안내

-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육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술빌딩 B1
(주)음양파부체형연구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

생명나눔실천회 사무실 이전 안내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생명나눔실천회가 새 사무실을 이전하여 뒤늦게나마 아래와 같이 조촐한 개소식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 일동은 불은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생명나눔실천회 사무실 이전식 -
1. 일시 : 불기 2546년 7월 29(월) 오후 4시
2. 장소 : 서울 중로구 청진동 18번지 삼영빌딩 401호 (약도참조)
(전화번호는 02-734-8050으로 동일합니다.)
※ 회원님들에게 별도의 초청장을 발송에 드리지 못함을 양해에 주시기 바라며 영사 당일 회원은 일체 사양합니다.



간(肝)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지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7미술)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수분이 녹을때까지 4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참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할이리에 넣고 황겨 97마리를 넣은 뒤 황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한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겨가 다 타들어 가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량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신마을 토종 (민승환)